

‘단독방 사건’ 군포 A고교 이번엔...

# 교장이 여교사 강제추행 ‘구설수’

### 고소장 접수... 경찰, 수사 착수 도교육청, 규정 따라 직위 해제 전교조 “구조적 문제 조사” 요구

학생과 교사들을 협담한 ‘단독방 사건’으로 홍역을 치렀던 군포의 한 고등학교에서 이번에는 교장이 여교사를 강제추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군포 A고교 여교사 B씨는 지난 7월 교장 C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군포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이후 B씨로부터 2개의 고소장을 추가 접수한 뒤 C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그의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소인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자세한 수사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경기도교육청은 관련 규정에 따라 C씨에 대한 직위 해제 조치를 내렸다. 또 A고교 관할인 군포의왕교육지원청도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감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 교원정책과에서 경찰 수사 개시 통보에 따라 규정을 검토한 뒤 C씨의 직위를 해제했다”면서 “지역교육지원청 감사 결과가 나와 봐야 징계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현재까지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단계”라고 전했다.

교원단체들은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교육 당국이 손을 놓지 말고, 해

당 교사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경기지부 관계자는 “도교육청은 지금부터 2차 피해 방지와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추가 조사에 나서야 한다”라며 “고위공직자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도교육청 차원에서 살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군포 A고교는 지난 5월 남학생들이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통해 같은 학교 학생과 교사들을 협담한 ‘단독방 사건’(본보 7월13일 7면)이 벌어져 총 13명의 학생이 중징계 처분을 받아 지역사회의 공분을 산 바 있다. 당시 군포의왕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전학 5명, 출석정지 3명, 교내 봉사 4명, 혐의 없음 1명 등의 처분을 내렸다. 정민훈기자



교통 방호벽 무덤 25일 오후 화성시 남양읍 남양교차로 인근 공터에 방호벽 수백개가 장기간 방치돼 있어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조주현기자

# 수원 모든 주민 전수조사 ‘위기가구 발굴’

### 시, 복지사각지대 찾아 ‘세 모녀 사건’ 재발 방지 총력

수원특례시가 세 모녀 비극과 같은 사회복지과에 전송하면, 동 직원이 참사를 막기 위해 관내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서서 등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에 총력을 기울인다.

25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시는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상·하반기에 한 차례씩 시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을 조사하는 ‘수원 타지역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전수조사’를 시행한다.

공무원·통장·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위해 가정을 방문할 때 거주 환경, 생활 실태 등을 꼼꼼하게 관찰한 후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등 복지담당자에게 곧바로 연계한다.

‘은둔형 위기가구 자체 발굴 시스템’도 구축한다. 세무과와 상수도사업소에서 지방세 장기 체납자·단수(斷水) 가구 데이터를 추출해 각 구

사회복지과에 전송하면, 동 직원이 해당 가구를 방문해 생활 실태를 조사한 후 도움이 필요하면 복지자원을 연계해준다.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한 후 주민등록지와 거주지가 다른 주민등록을 정리한 후 급여 신청을 해준다.

또 가정 방문이 잦은 집배원, 수도·가스검침원, 부동산중개업자, 아파트 관리소 직원 등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활용해 복지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서비스’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확대된다. 이 서비스는 개인가구 연령, 가구 구성, 경제 상황을 기준으로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찾아 결혼·출산·육아·질병·연령 등 생애주기별 78개 맞춤형 복지급여를 안내해준다. 동 단위로 온라인 위기가구 발굴

창구인 ‘카카오톡 채널’도 운영한다. 각 동에서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하고, 카카오톡을 활용해 주민들에게 복지정보를 안내하고, 복지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용회복위원회, 삼천리도시가스 등 유관기관과는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위기가구 상시 발굴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부업체, 세금 체납자, 신규 전입자 등을 대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체납액 독촉고지서 이면과 대부업체 등을 통해 위기가구 발굴을 홍보할 예정이다.

동에서 체납자를 상담할 때 복지제도권 내에 있는 가구는 공적 급여를, 법적 비제도권 있을 가구는 민간지원서비스를 연계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양희모기자

### 의외장 후보 뇌물 허위 사실 유포 시민단체 사무국장 등 실행 선고

기초의회 시의장 선거 후보가 뇌물을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단체 사무국장 등 2명에게 법원이 실행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정환 판사는 무고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8개월을, B씨(48)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의장 선거에 임박해 후보자 C씨를 무고하거나 허위 사실을 다수의 언론에 유포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께 한 기초의회 의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C씨가 ‘뇌물 4억원을 받아 부모 명의

계좌에 보유하고 있으며, 부인 명의로 구매된 부동산들도 뇌물로 사들인 것’이라는 허위 내용으로 진정서를 작성해 검찰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시민단체 사무국장인 B씨는 이 같은 진정 내용을 언론사에 유포해 C씨에 대한 허위 사실이 기사로 게시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민훈기자

# 한국어시험 대리 응시 마스크에 가려진 양심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서 대리시험을 치른 응시자와 중국인 브로커, 돈을 주고 대리 시험을 의뢰한 유학생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의정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중국 국

적의 브로커 A씨와 시험에 대리 응시한 7명(중국인 6명과

한국인 1명), 대리응시를 의뢰한 중국인 유학생 6명 등 모두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15일 의정부경민대에서 치러진 82회 한국어능력시험 때 대리시험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험을 의뢰한 중국인 유학생들은 한국 대학에서 공부하며 졸업이나 학위에 필요한 4급 이상 한국어능력시험 급수 취득

이 어려워지자 대리응시를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중국 구직사이트에서 브로커 A씨 등과 접촉해 1인당 5천위안(약 10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대리시험을 의뢰했다.

A씨를 비롯한 브로커들은 자격증 취득에 성공하면 40만~50만원을 주기로 하고 한

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등 7명을 모집했다.

최근 각종 자격증 시험 때 코

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 시험감독관이 응시생 수신품의 얼굴을 면밀히 살피기 힘든 점 등을 이용해 대리시험을 치르려 했다.

경찰은 대리응시 의뢰자 중 출국금지 요청 중 이미 중국에 간 1명과 또 다른 브로커를 추적 중이다. 의정부=김동일기자

### 평택 승합차-레미콘 충돌 사고... 운전자 1명 사망

25일 낮 12시50분께 평택 지제동 을성저수지 인근 왕복 5차선 도로에서 승합차 방향으로 주행하던 스타렉스 승합차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레미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

던 20대 남성 A씨가 현장에서 숨졌다.

사고가 난 승합차에는 A씨 외 다른 탑승자는 없었다.

레미콘 차량이 반대편에서 오는 승합차를 피하는 과정에서 옆 차선에서 주행하던 제네시스 승용차와

충돌하는 2차 사고도 발생했으나, 나머지 운전자와 탑승자 중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신호대기를 끝내고 10m가량 주행하던 레미콘 차량을 반대편에서 오던 승합차가 빠른 속도로 들이받으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평택=안도연기자

## 8월의 크리스마스 캠페인

어린이날 100주년을 기념하여 특별한 크리스마스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명예그린 산타	그린 리더 산타	그린 산타	신타선물
인천광역시 (주)정밀글로벌	문영우 (우진파넬(주))	남동구경영인연합회	정요안 박순화
인천광역시교육청	(주)디에이텍	삼정아우징(정약수)	한국남부발전신안전빛발전본부 정찬희 배제미
경기일보	신협 인천지역협의회	현대자동차 인천지역본부	(사)인천유망기업연합회 안창형(거포일보) (주)VIP교육
경인일보	신동아건설	인천KPS 영종사업자	(사)인천수출경영자협의회 진선미(꽃집 손님일동) 인천광역시 서구시설관리공단
기오일보	지엠안아메리칸코리아	하나금융티	전상삼 국공립안양수자녀인권이집 마늘다슬어린이집
인천일보	(주)유진로봇	김진야	대안임상병리사협회 인천시회 4989종교차 아비케어 소모임팀
동부일보	(주)디씨아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정종삼 청문대학교 부동산학과 인천 음악초등학교
인천광역시 비전기업협회		경인교육대학교 부설 초등학교	한영강 인성의료재단 한림병원 박명숙(인천광역시)
인천상공회의소		(주)두용종합건설	정아은 계동수 이상규(인천도시가스) 권문혁(서문도서관)
		(주)엔서브	

### 선물방법

- 1 캠페인명 : 8월의 크리스마스
- 2 사업기간 : 2022년 5월~8월 (8월 중 성료식 진행)
- 3 사업내용 : '8월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위한 특별 모금 진행
- 4 지원대상 : 인천지역 취약계층 어린이에게 선물 및 결연금 후원

365 선물(정기후원)

· 한 아동 당 결연후원 월 10만원  
· 기업 결연아동 간 1:1 매칭

그린 산타 (100만원 이상 후원자)

· 그린 산타 인증서 발급  
· 후원금 전담식 언론보도

산타후원(일시후원)

한 아동 당 선물 10만원

그린 리더 산타 (1,000만원 이상 후원자)

· 그린 리더 산타 인증서 발급/감사패 수여  
· 후원금 전담식 언론보도  
· 캠페인 성료식 행사 초청

“ 크리스마스를 희망하는 아이들에게 특별한 산타가 되어주세요. ”

어린이재단 전국위원회  
**최불암** 회장

후원문의

후원문의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천지역본부 032-875-7010

어린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세상을 만들어 나갑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https://www.childfund.or.kr>

“어린이날 100주년을 기념하여 인천지역 취약계층 어린이를 위한 특별한 여름방학 선물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더욱 힘들었던 아이들에게 365일 내내 크리스마스와 같은 하루를 선물해주세요”